



## 정신장애인의 경제상태

### 정신장애인 월평균 소득, 전체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쳐

가구유형별  
월평균 소득  
현황 비교

수입과 지출은 가구의 경제 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임. 이에, 「2019 장애통계연보」 및 「2014년 장애인실태조사», 「2017년 장애인실태조사」를 토대로 장애인 가구 및 정신장애인 가구의 수입·지출 및 최소생활비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를 분석함.

[ 가구유형별 월평균 소득 현황(2014년, 2017년) ]

• 자료원 : 2019 장애통계연보(한국장애인개발원) 재구성



주) 전체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2014년, 2017년 6월기준임. 장애인가구 및 정신장애인가구는 「2014-2017 장애인실태조사」 자료임. 「2014년 장애인실태조사」는 전국 가구(2인 이상 기준)의 월평균 소득자료를 사용하였으나, 장애인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하여 「2017 장애인실태조사」에서는 전국가구(가구원수 별 가계수지 중 1인 가구를 포함한 자료)의 월평균 소득자료를 사용함.

장애인 가구의 경우, 장애 가구원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장애 가구원도 장애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음. 특히 정신장애는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낮은 수입을 받는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장애인에 비해서 더 빈곤할 가능성이 높음.

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,

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242.1만원으로 2014년(223.5만원) 대비 8.3% 증가한 반면,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80.4만원으로 2014년(152.1만원) 대비 18.6% 증가함.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,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여전히 15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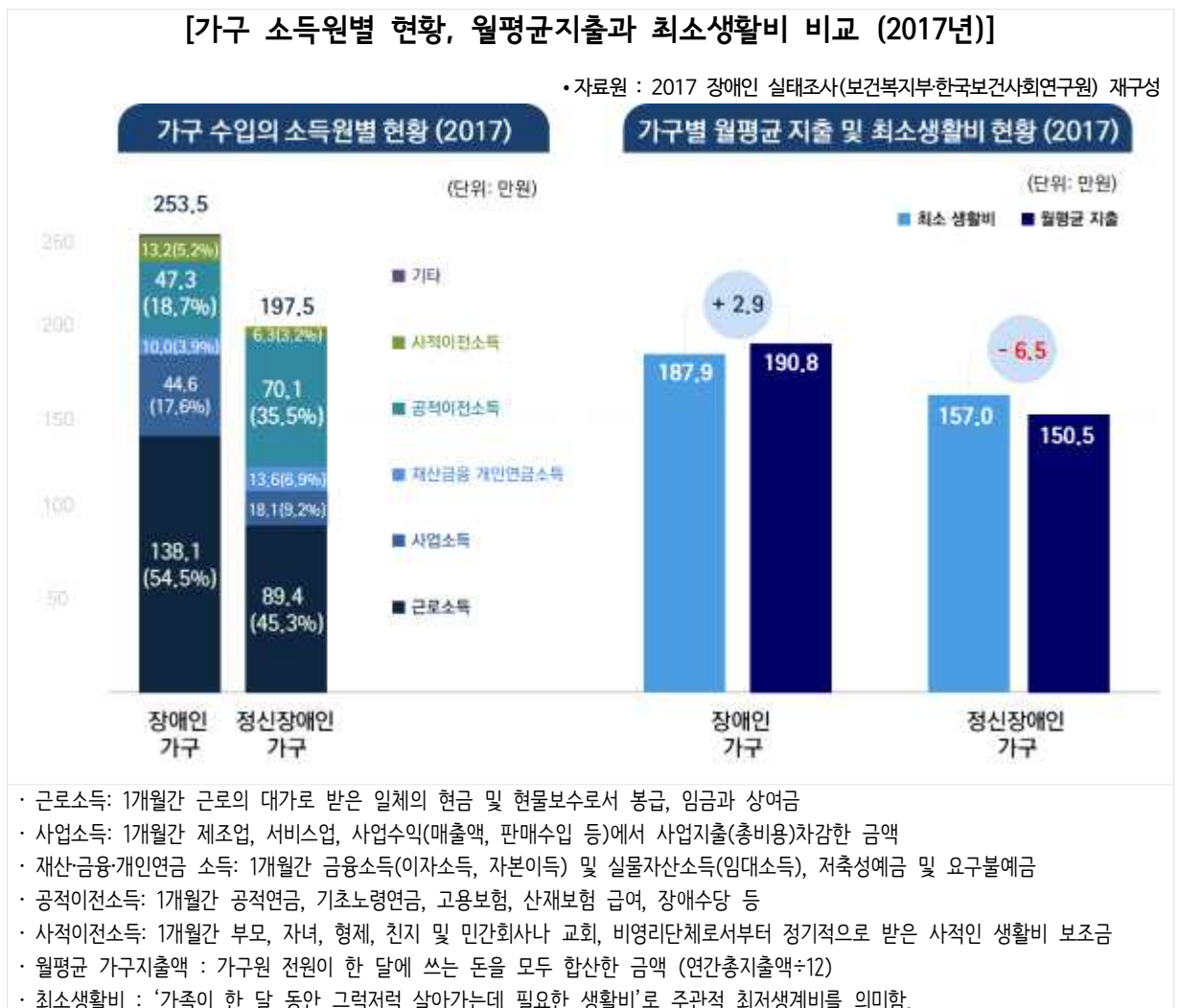
\*월평균 가구소득액 : 기본급, 사업소득, 연금, 보조금 등 가구전원이 3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금액 (가구 및 판별조사)

가구 유형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,

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.1만원인데 비해 장애인 가구는 242.1만원으로 전체가구의 57.2% 수준임. 특히,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0.4만원으로 장애인가구의 74.5%, 전체가구의 42.6%에 불과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.

월평균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지라도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빈곤한 상태이며, 여전히 소득이 가장 낮은 장애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 이는 정신장애인 가구를 위한 월평균 소득액은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함.

## 정신장애인 가구의 빈곤상태, 장애유형중 최하위



## 가구 수입원 비중 비교

2017년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가구별 수입원 비중을 살펴보면,

- 장애인 가구의 수입액은 총 253.5만원으로, 근로소득 138.1만원(54.5%), 공적이전소득 47.3만원(18.7%), 사업소득 44.6만원(17.6%), 사적이전소득 13.2만원(5.2%), 재산금융·개인연금소득 10.0만원(3.9%), 기타 0.3만원(0.1%) 순임.
- 정신장애인 가구의 수입액은 총 197.5만원으로, 근로소득 89.4만원(45.3%), 공적이전소득 70.1만원(35.5%), 사업소득 18.1만원(9.2%), 재산금융·개인연금소득 13.6만원(6.9%), 사적이전소득 6.3만원(3.2%) 순임. 또한 정신장애인 가구 수입액은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음.

\*월평균 수입액: 1개월간의 소득원별 수입액의 합계로써 장애인심층조사에 해당함. 상기 월평균 가구소득현황(가구·판별조사)과 다소 차이가 있음.

근로소득은 장애인 가구의 수입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나,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우 45.3%(89.4만원)로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함. 정신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비중은 전체 장애유형 중 호흡기 장애 36.4%(84.1만원), 장루·요루장애 39.0%(82.9만원) 다음으로 낮으며, 이는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함.

반면, 정신장애인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장애인 가구 18.7%에 대비 약 2배 높은 35.5%로 다른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음. 공적이전소득이 높다는 것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, 상대빈곤율이 높은 유형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도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, 아직 공적급여액은 빈곤에서 벗어나기에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(이선우,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).

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가구별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,

장애인 가구의 지출액은 2017년 190.8만원으로 2014년(170.6만원) 대비 11.8% 증가한 반면, 정신장애인 가구의 경우 150.5만원으로 2014년(122.0만원) 대비 23.4% 증가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장애인 월평균 가구지출액의 79%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,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음. 이는 월 지출액이 가구 수입의 영향을 받기 때문임.

## 월평균 지출액과 최소생활비

한편,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가구별 한 달 동안 최소생활비를 살펴보면,

장애인 가구의 최소생활비는 187.9만원이며, 정신장애인 가구는 157.0만원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음.

월평균 지출액과 최소생활비의 차이를 비교하여,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 빈곤상태를 확인함. 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더 많으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, 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으면 해당 가구는 주관적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주관적 빈곤상태로 볼 수 있음(이선우,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).

15개 장애 유형 중 장루·요루장애(-13.4만원) 정신장애(-6.5만원), 뇌병변장애(-4.1만원), 청각장애(-1.9만원) 순으로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최소생활비보다 적으며, 이 장애 유형의 가구는 주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| 구분         | 지체    | 뇌병변   | 시각    | 청각    | 언어    | 지적    | 자폐성   | 정신    | 신장    | 심장    | 호흡기   | 간     | 안면    | 장루·요루 | 노년증   | 장애 전체 | 일반 전체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014 가구소득  | 218.6 | 233.1 | 235.2 | 213.8 | 267.7 | 277.2 | 349.9 | 152.1 | 258.8 | 246.3 | 181.3 | 219.4 | 251.8 | 178.9 | 106.5 | 223.5 | 415.2 |
| 2017 가구소득  | 243.2 | 227.7 | 239.9 | 209.2 | 310.9 | 294   | 435.6 | 180.4 | 251.4 | 283.4 | 239.3 | 376.3 | 428.3 | 209.4 | 304.5 | 242.1 | 423.1 |
| 2017 가구지출  | 188.4 | 192.8 | 185.2 | 163.6 | 223.5 | 232   | 349.7 | 150.5 | 217.2 | 232.9 | 202.7 | 295.7 | 296.1 | 183.4 | 238.0 | 190.8 | -     |
| 2017 최소생활비 | 185.6 | 196.9 | 177.4 | 165.5 | 183.2 | 219.4 | 341.7 | 157.0 | 204.8 | 231.3 | 191.6 | 264.3 | 241.1 | 196.8 | 181.8 | 187.9 | -     |

정신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, 여전히 전체가구 및 장애인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.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고 보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

가구는 여전히 많음. 특히, 근로소득이 낮은 정신장애  
인 가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  
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 지속  
적으로 빈곤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장애가구의 생활안  
정을 위한 유형별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함.

※ 정신건강동향 활용·인용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바랍니다.

#### NMHC 동향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vol.1; 2018. 3          | 조례로 보는 정신건강                |
| vol.2; 2018. 5          |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            |
| vol.3; 2018. 9          | 세계 정신건강의 날 (WMHDAY)        |
| vol.4; 2018. 10         | 한국인의 정신질환 질병부담             |
| vol.5; 2019. 1          | 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분석 (중앙부처) |
| vol.6; 2019. 1          | [칼럼] 정신장애는 정말 있는가?         |
| vol.7; 2019. 2          | [칼럼] 정신과 진단을 하면서 경계해지는 이유  |
| vol.8; 2019. 3          | 정신건강통합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    |
| vol.9; 2019. 4          | 정신장애인의 자살                  |
| vol.10; 2019. 6         | 한눈에 보는 국외 정신건강 미디어 가이드라인   |
| vol.11; 2019. 8         | 정신장애인의 건강                  |
| vol.12; 2019. 9         | 정신재활시설 현황                  |
| vol.13; 2019. 10        | 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               |
| vol.14; 2019. 11        |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              |
| vol.15; 2020. 2         | 2020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(중앙부처)    |
| vol.16; 2020.4          | 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 및 초발환자 의료이용현황  |
| vol.17; 2020. 5         |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                |
| vol.18; 2020. 6         | UN에서 말하는 코로나19와 정신건강       |
| vol.19; 2020. 8         |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신질환 진료현황       |
| vol.20; 2020. 10        | 시도별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현황     |
| <b>vol.21; 2020. 12</b> | <b>정신장애인의 경제상태</b>         |